

고유가 실속템 ‘주유 특화카드’ 신규발급 잇따라 중단

신한카드, 알뜰주유소 카드 등 중단
롯데카드, 31일부터 6개 카드 단종
카드사, 주유카드 ‘역마진 구조’
기름값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

일부카드사들이 주유 특화카드를 중단하고 있다. 올해 초 미·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 요청에 따라 주유 할인 혜택을 연장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알뜰주유소’ 카드와 함께 ‘택배복지’ 카드(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대상)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알뜰주유소 카드는 전국 900여 곳 알뜰주유소에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리터당 60원을 할인해 주는 주유 특화카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포함한다.

택배복지 카드는 택배용 화물차량 운전자 전용 유류 구매 카드다. 화물 우대주유소에서 경우 주유 시 리터당 최대 7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에너지, GS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텍스, S-OIL에서는 리터당 현장 할인 15원에 결제일 할인 55원을 더해준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현장 할인, 결제일 할인에 더해 정유사 포인트 적립 혜택도 지급했다.

롯데카드도 이달 31일부터 총 6개의 주유 특화 카드를 단종한다. ‘오일 킹(OIL KING) SK 롯데카드’, ‘SK롯데체크카

드’, ‘뉴GS칼텍스 롯데카드’, ‘구도일 플러스100롯데카드’, ‘HD현대오일뱅크 라이빙 패스 롯데카드’, ‘SK 드라이빙 패스 롯데카드’ 등이다.

각 카드는 SK주유소, GS주유소,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유소에서 리터당 할인, 적립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오일 킹 SK 롯데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구도일 플러스 100 롯데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100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앞서 올해 초 카드사들은 미·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 요구에 따라 주유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카드사들의 주유 할인 혜택 지원은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4월에는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주유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주유 특화카드를 단종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주유 카드는 대표적인 역마진 구조다. 주유소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수익 대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과 조달 원가가 더 비싸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해 초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시기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요구한 주유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단종이 노후 상품 정리와 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휘발유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유 특화카드가 축소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864원으로, 지난 6~7월부터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협상 교착에 따라 최근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증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국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서 고유가 혜택 지원 확대 시기 들어갔던 비용이 크지는 않았다”면서 “상품라인업 재정비에 따른 상품 운영 조정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관계자 역시 “해당 카드는 출시연도가 최소 10년 이상된 카드”라며 “이번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을 위해 발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금행넷, 미래세대 금융역량 향상 교육 실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업무협약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 2기’ 운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미래세대의 금융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금행넷은 금융위원회 승인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금융경제교육 전문단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금행넷은 1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 2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민병두 금행넷 이사(전 국회 정부위원장), 한미미 금행넷 이사(현 서울 YWCA 국제협력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2화차를 맞은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는 미래세대의 금융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당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금행넷은 지난해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1기’부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협력해 서울·경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돕는다. 양 기관은 교육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는 지

역아동센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금융지식을 교육하고,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선별 비중을 조정했으며, 다양한 금융상황에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도 새롭게 적용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작년 1기에 이어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심화 커리큘럼으로 미래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의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한화손보, 민원 최저… 보험지표 개선세

2분기 민원 전년비 11.5% 감소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 13.2% ↓

캐롯손해보험을 품은 한화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민원 환산건수가 통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며 차보험사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외형 성장에 이어 소비자지표도 개선됐지만 전체 민원의 93%가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을 거쳐 접수됐고 핵심 전산 통합도 진행 중이어서 안정화 여부는 추가로 지켜봐야 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분기 한화손보의 전체 민원은 664건으로 전 분기(750건)보다 11.5% 감소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도 7.49건에서 6.50건으로 13.2% 줄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계 전체 민원이 1만1108건에서 1만893건으로 1.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보험 지표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한화손보의 자동차보험 민원은 1분기 163건에서 2분기 136건으로 16.6% 감소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은 9.89건에서 8.03건으로 18.8% 줄었다.

2분기 자동차보험 환산건수를 빅5와 비교해도 한화손보가 가장 낮았다. 현대해상은 8.70건, DB손해보험은 10.87건, 삼성화재는 11.93건, KB손해보험은 11.94건이었다. 회사별 상품과 고객 구성이 달라 이를 소비자보호 수준의 절대적인 순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 규모를 반영한 공식 소비자지표에서 한화손보가 대형사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10월 캐롯손보를 흡수합병했다. 한화손보가 캐롯손보를 흡수 합병한 지난해 4분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145건, 환산건수는 8.95건이었다. 올해 1분기 각각 163건과 9.89건으로 올랐다가 2분기에는 136건과 8.03건으로 내려왔다. 민원 건수와 환산건수 모두 비교 가능한 통합 이후 세 분기 중 가장 낮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전체 민원은 546건에서 664건으로 21.6% 늘었다. 다만 지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사옥. /한화손해보험

난해 2분기는 합병 전 한화손보 단독 실적인 반면 올해 수치에는 캐롯손보의 계약과 고객 기반이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통합 이후 분기별 흐름과 보유 계약을 반영한 환산건수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번 변화는 자동차보험 외형이 빠르게 커지는 시기에 나타났다. 점에서 주목된다. 한화손보는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매출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도 통합 전 5.6%에서 올해 1분기 6.0%로 상승했다. 계약 증가 효과를 반영한 민원 환산건수까지 하락하면서 적어도 2분기에는 외형 확대가 민원 강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고 접수와 보상협의, 수리안내 등 고객과의 접점이 넓어 그 과정에서 고객경험을 중요한 소비자보호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객의 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관리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롯 통합 이후 숙려된 업무·보상 인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불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며 안정적인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KB금융, 소방공무원 건강회복 지원 확대

국립소방병원 ‘국민의 영웅쉼터’ 조성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소재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소방공무원의 치료·회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지킴이’ 소방공무원의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소방전문 병원이다. 화상·재활·정신건강 등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손해보험이 추진한 소방공무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B손해보험은 국립소방병원 내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국민의 영웅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KB손해보험 구분옥 사장, 국립소방병원 광영호 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온기우편함’과 ‘회복응원키트’ 60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 광영호 국립소방병원장, KB손해보험 구분옥 대표 등 150여 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정보 연계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임대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부동산원은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신고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제공에 동의한 정보가 해당된다. HUG는 제공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함께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안내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